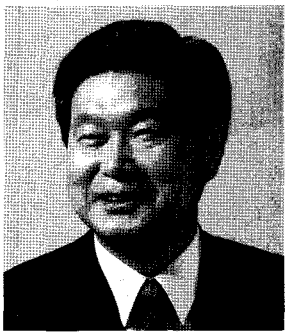
물류문제 이렇게 본다

새정치 국민회의 국회의원 한화갑

본지는 본란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의 물류문제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을 소개하고자 3당의 건설 교통위원에게 드린 설문에 대하여 기고해주신 차례대로 각호에 나누어 싣습니다. 다망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주)



한 화 갑 의원

- 국회건설교통분과위원
- 당무위원
- 전남도지부장
- 목포, 신안乙구

1. 우리나라 물류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물류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투자 이루어 져야"

'94년도 우리나라 총 물류비가 48조원으로서 GDP(국내총생산액) 대비 15.7%로 연평균 19.5%의 증가율을 나타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 19%를 상회하고 있어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 총매출액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7%로서 미국 7%, 일본 11%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물류비 비중이 높은 것은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물류시설의 부족 및 기존시설의 비효율적인 이용, 운송 및 하역의 전근대화와 인건비의 상승, 공차율 41.6%, 연계수송율 8.6%인 화물유통운영시스템의 낙후성, 그리고 고객주문의 다품종 소량화 추세에 기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미국의 1/94, 일본의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물의 수송 거리는 미국,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으며 따라서 물류체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미국, 일본에 비하여 물류비의 비중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2. 우리당의 물류선진화 방안 및 정책

"단기적으로는 행정규제의 대폭완화와 물류산업의 지원강화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SOC(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 두어야"

우리 당은 물류비가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각종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점을 두고, 특히 물류산업이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시설과 SOC(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을 두되,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을 지양하고 권역별 거점시설화 함으로써 수요의 분산을 통한 물류비절감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며 또한 물류정보화와 물류표

준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물류표준화와 파렛트 표준화에 대하여

"파렛트 표준화는 물류표준화의 핵심"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 실태를 보면, 하드웨어 부문에 있어서는 파렛트, 국내용컨테이너, 운반/하역기기, 트럭적재함 등의 다양화로 표준화가 미흡하여 물류효율을 저하시키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는 물류에 관한 거래단위, 전표, 데이터교환 코드체계, EDI등의 표준화 미흡으로 토탈 시스템화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이 표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파렛트의 표준화는 수송 및 하역의 기계화, 성력화, 효율화를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자 물류표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4. 국내 민간물류단체의 역할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재정적지원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펴야"

국내 민간물류단체들이 물류관련업계의 대변자로서 물류정책당국과의 가교역할과 물류혁신을 선도하는 산, 관, 학 삼위일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선진물류정착을 앞당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류마인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물류관련 민간단체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재정적인 지원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물류업계 및 전 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

"기업인들의 물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물류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물류업계는 공동물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물의 대량화를 유도하는 한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문물류업체의 대형화, 그리고 물류기술의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저렴하고 고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아울러 전 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류혁신을 통해서만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인들의 물류에 대한 인식전환과 물류시스템의 구축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 정부물류관련부처(건교부, 통산부, 농림부, 재경원 등)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

"부처이기주의 탈피하고 예산배정 우선 순위두어야"

무엇보다도 먼저 부처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물류문제의 해결이 국가경제회생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물류정책의 전문성 및 일관성의 제고에 합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건교부가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통상산업부의 도소매유통이나 농림부의 농산물유통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면서 요소요소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제의 철폐 내지는 완화, 그리고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물류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겠습니다.